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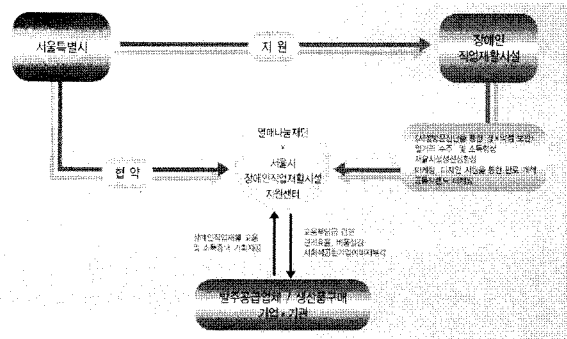
오형민 경영지도사(21기)
원포인트경영연구원(주) 대표이사

서울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중소기업과 장애인과의
상생(相生)의 길을 향하여-

1. 지원센터 설립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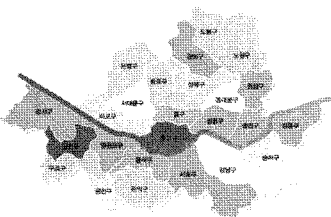
현재 국내에서 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직업을 통해 재활을 돕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351개가 운영되고 있고 약 1만여명의 중증장애인들이 근로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들 재활시설에 대한 유형개편에 착수함에 따라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재활시설들은 정부 및 지자체의 운영비지원이 중단되고 근로장애인들이 주간보호소로 보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경우 80여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으며 약 2,600여명의 중증 근로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시설에서는 임가공 작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일부 시설에서는 완제품을 생산 및 판매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재활시설에 대한 유형개편에 대응하여 전국 지자체중 최초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공모한바 있고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대표이사 김동호)』과 『원포인트경영연구원(주)(대표이사 오형민)』이 컨소시엄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본 사업을 수주하게 되었다. 본 사업의 본격적인 수행을 위해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센터』를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양천구 목동소계)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와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이 협약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마케팅, 디자인지원 등을 통해 근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이 증대되도록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일거리수주·제품개발·생산체계·판로개척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다.



← 서울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센터의 업무흐름도

2. 지원센터 운영현황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이 사업주관기관으로서 서울시와 함께 매칭펀딩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지원기관 컨설팅 전문기업인 『원포인트경영연구원(주)』은 실무총괄기관으로서 본 사업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는 참여하는 전문컨설턴트의 선발 및 관리 책임을 맡아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8년 7월에 설치되어 2009년 2월까지 1차시범사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지원센터의 구성인력으로는 오형민 센터장의 상근직원 5명이며,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의 추천을 받은 현장의 분야별 전문컨설



턴트 16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문컨설턴트 16명은 78개의 재활시설에 대한 1,2차의 시설진단과 대안실행을 통해 일거리제공, 소득향상, 생산성향상, 마케팅 및 디자인 지원 등을 통한 판로 개척, 공동브랜드 마케팅, 온라인쇼핑몰 구축, 시설종사자의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은

2003년 높은뜻승의교회의 밀천나눔공동체를 시작으로 2007년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을 설립하여 Micro-Credit 사업과 새터민들의 제1호 희망공장 “메자니아이팩”을 설립하며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 제2호 희망공장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새터민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여 고용창출을 하고 있고 다양한 기금지원사업도 병행중이다.

원포인트경영연구원(주)는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장애인사업장 등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코자 2007년 1월 법인을 설립하였다. 오형민 대표이사는 삼성그룹 계열 제일기획출신으로 에버랜드, 에스원 등의 삼성 브랜드전문가로 현재 동서울대 겸임교수, 경기도자문위원, 대한민국마케팅대상심사위원, 장애경제인협회 심사위원,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상담위원 등을 맡고 있다. 21기경영지도사로서 현장으로 컨설팅, 쿠폰제 컨설팅 등 중소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3. 사업의 의의 및 성격

1) 사업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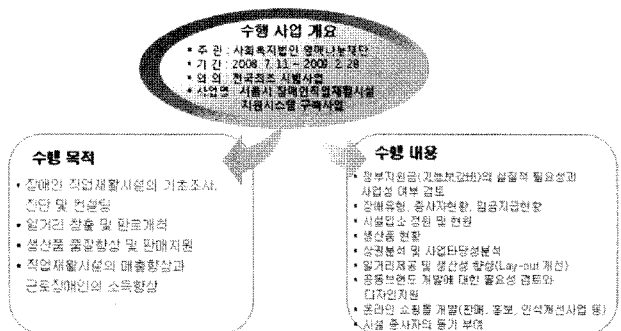
본 사업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경영컨설팅을 적용해 보는 실험적 성격이 강한사업이란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경영컨설팅이 보고서 중심의 진단 및 전략중심의 컨설팅이었다면 본 사업은 취약계층이 고용된 기관에 대해 컨설턴트가 보고서 제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도출을 위해 경영의 각분야에 ‘직접개입’을 함으로써 계량화된 실제성과를 도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들이 국비 무료컨설팅을 받으면서 보고서를 제출받아 스스로 개선하는데 인적,물적자원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가 경영컨설턴트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초기 진단과정에서 서울시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과 기업연계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질 매출증대를 요구해 왔다.

전국최초로 재활시설에 대한 지원센터 운영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담당 공무원과 재활시설 종사자들이 갖는 절박감과 위기감을 느낀 지원센터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다 심도있게 파악할 수 있고 가장 시급한 과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발주처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파트너 역할을 위해 시설종사자의 경영마인드 고취를 위한 과제해결학습과 단계별 경영자 양성과정 교육을 병행하여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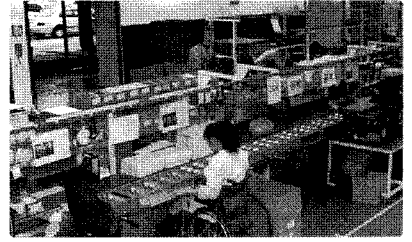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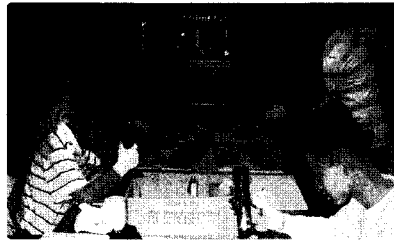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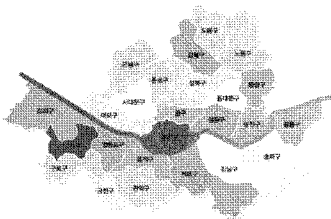




오형민 경영지도사(21기)
원포인트경영연구원(주) 대표이사

서울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중소기업과 장애인과의
상생(相生)의 길을 향하여-



2) 사업의 성격

본 사업은 사업의 의의에서 언급한대로 보고서 중심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컨설턴트들이 직접개입 하도록 기획 되었다. 이를 위해서 컨설턴트의 외부자원을 직업재활시설에 연결하고 직업재활시설의 내부역량을 강화하여 민간기업과 같은 시설의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발주처인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원가절감, 품질과 납기준수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중소기업 전문 컨설턴트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partnership을 가지고 협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성과 및 혜택이 특정 직업재활시설에 편중되지 않도록 매출이 낮은 직업재활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4. 컨설턴트의 활동

1) 일거리 수주

각 시설에 배정된 16명의 컨설턴트들은 추진 목표 중의 하나인 일거리수주를 위해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8년 11월 현재 일거리수주시설 기준으로 22건(발주기업 15개사)의 일거리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제공하였다. 이는 사업제안 당시의 일거리수주목표의 4배를 뛰어넘는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일거리수주금액 기준으로도 11월말 기준 당초 매출목표에 거의 100%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일거리 제공과 관련된 활동과 일거리수주를 위한 활동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거리수주설명회

첫째, 각 컨설턴트가 제공한 일거리와 지원센터가 발굴한 일거리를 해당 직업재활시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매월 일거리수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기업에서 주문한 일거리를 가장 최적의 직업재활시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008. 11월 현재 3회의 일거리수주설명회를 통해 15개 시설에게 6억여원의 일거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였다.

둘째, 지난 2008.9.30에 SETEC에서 개최된 장애인취업박람회에 참여하여 350여 참가기업에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홍보하고 직업재활시설의 일거리수주를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 결과 연계고용으로 인한 고용분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하여 대기업과 직업재활시설간의 일거리 연계라는 큰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직업재활시설은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여 근로 장애인의 소득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고, 기업은 직업재활시설에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 책임완수 및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기업이미지 향상을 추구하는 상생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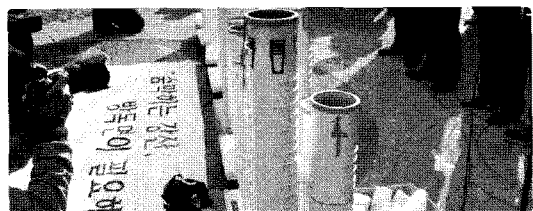
2008 장애인취업박람회



성남산업진흥재단과 업무협약

셋째, 중소기업지원기관과 연계한 일거리수주 및 홍보활동이다. 개별기업을 접촉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도권내 최고수준의 지원기관인 성남산업진흥재단의 협조를 얻어 이곳에서 운영중인 벤처넷을 통해 2,500여개 협력기업에게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시스템구축사업』을 홍보하여 산하기업에서 생산중인 제품을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연계하였다. 또한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의 신기술창업센터와 연계하여 창업센터에 입점한 기업과 직업재활시설 간에 일거리를 연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고 입주기업들중 생산시설 및 주공장의 확보 등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방문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안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의 연계사업이 공모제안 채택된바 있고 이를 활용한 연계 일거리수주가 본격화 될 예정이다.

넷째, 시민단체인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협력하여 제공한 일거리이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폐지된 이후 Take-Out 된 1회용 컵에 대한 대안적인 관리방법이 요구되어 가로변등 공공장소에 버려지는 1회용 컵 회수를 위한 환경부의 지원을 받는 시범구축사업 캠페인활동이 지난 2008.10.29일에 서울 잠실역 광장에서 있었다. 이 시범구축사업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가 역할을 하였으며 그 결과 1회용 컵 회수대를 직업재활시설이 제작하여 전량 납품하였다.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결과에 따라 2009년 전국사업으로 확대시 대규모 생산납품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과 직업재활시설간의 상생협력 사례〉

성남시 위치 W산업

W산업은 국내시장을 공략하는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던 중 생산에 필요한 인원을 강남소재 D직업재활시설과 업무제휴를 통해 충원하고, D직업재활시설은 직업교육을 받은 장애인들을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선발하여 W산업으로 파견근무를 하게 되었다. 이에 W산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통해 품질과 납기일, 경쟁력강화 등의 효과를 얻게 되었고, W산업과 제휴를 맺은 직업재활시설은 근로기회를 얻고 장애인들은 고정적소득으로 인해 생활의안정을 얻게 되었다.

구리시 위치 J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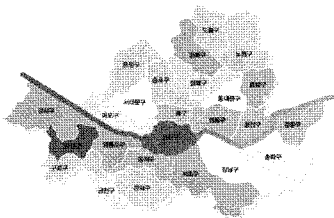
사업장 주변에 있는 80여 가정에서 임가공으로 부품을 생산하던 J 산업은 최근 기업 의뢰 물량을 소화하기 어려워 안정적 위탁생산업체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새로운 대안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제품의 자재 집하와 생산품 수거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관리의 효율성과 납기일 만족이라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장애인들은 단순 임가공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숙련도에 따라 생산성 향상과 좋은 품질로 기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오형민 경영지도사(21기)
원포인트경영연구원(주) 대표이사

서울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중소기업과 장애인과의
상생(相生)의 길을 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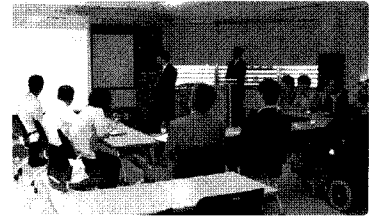


2) 생산성 향상

각 시설에 배정된 컨설턴트들은 해당 직업재활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을 지도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김치작업대 높낮이 조정(생산성 개선방법 지도), 작업장 환경개선 및 프레스안전장비 개선 지도, 콘텐서 조립작업 표준화 및 LAY-OUT 개선 지도, 황토소금 제조용 가마 교체 개선방안 지도, 생산관리/품질경영체계 정비, 상자케이스 작업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 지도등 이다. 이를 통해 직업재활시설은 개선된 생산시설에서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3) 업종별 간담회 개최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직업재활시설 가운데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시설이 다수 존재하여 중복투자, 정보교류부재, 교류모임 미활성화 등의 문제가 있어 동일 업종 간에 Synergy 효과를 위해 지원센터가 주관이 되어 동일 업종 간담회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업종별 간담회

동일업종은 인쇄·현수막, 재생카트리지, 제과제빵, 비누, 카페운영, DM, 청소용역 등이다. 업종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시설간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고, 공동 마케팅을 통한 효율적인 판매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고 있어 참여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4) 시설 조사 및 진단

2008. 7월에 동 사업이 시작된 후 지역별로 8개팀(2인 1조)의 컨설턴트들이 배정되어 78개의 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의 현황과약과 시설에 대한 진단을 1, 2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진단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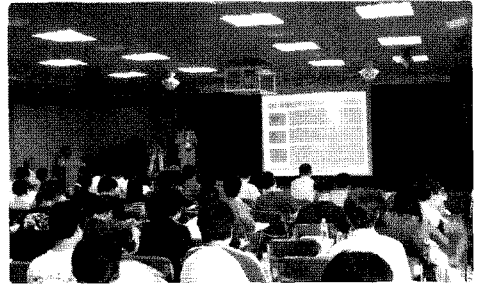


시설방문 및 진단

지원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일거리제공 등과 같은 지속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많은 컨설턴트들이 본 사업에 참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역량이 강화되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5) 경영마인드 제고 교육

재활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들이 대부분 복지전문가(사회복지사1,2급)들로 구성됨에 따라 기업네트워크가 취약하고 경영마인드의 고취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원센터는 참여 컨설턴트들의 의견을 토대로 교육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 의견을 개진하여 12월부터 본격적인 경영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턴트들의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교육 과정에도 강사로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직업재활시설 대상 워크샵 진행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한 컨설턴트들은 컨설팅 방식을 기존의 보고서 중심이 아닌 시설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복지분야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센터(센터장 오형민)와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회장 김덕룡)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협회소속 컨설턴트들이 대규모로 본 사업에 참여하게 하여 사회복지분야로 컨설팅의 분야를 넓혔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쿠폰제 컨설팅 및 컨설턴트양성 과정 등을 해온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경영과 복지의 연계고리를 찾는 새로운 방식의 컨설팅에 많은 회원 지도사들을 참여케 함으로써 컨설팅분야의 다양화와 협회 자체의 사업실적과 수익모델에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사업을 주관하는 지원센터의 핵심구성원들과 현장 참여컨설턴트들이 모두 경영지도사들로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2009년도 사업에 대해서 2008년도 성과에 근거하여 서울시 해당부서에서는 예산확보 및 사업지속화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경영지도사들의 컨설팅 및 교육에 대한 참여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센터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사들의 협조와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위에 아시는 기업이나 기관들 중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일거리제공(임가공, 위탁생산 등)이 가능한 곳이나 장애인생산품의 구매 등이 가능한 곳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본 지원센터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시거나 상근/비상근 컨설턴트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연락처 :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센터 T. 02-2062-2057

